

활음화 현상에 대하여

—경북 안동·월성 지역어의 비교—

李 時 震

1. 서 론

1.1. 본 연구는 경북방언의 하위지역어 중에서 안동군과 월성군에서 실현되고 있는 모음과 관련된 음운현상 가운데 활음형성 및 탈락에 대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방언연구의 흐름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왔다. 한 가지 측면은 대방언을 하나로 할 것이냐 혹은 둘 이상으로 할 것이냐이다. 이러한 태도를 좀 더 협소화시키면 지역어에도 그러한 면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¹⁾ 여기에서는 두 지역어를 대상으로 할 것이다. 왜냐하면 두 지역어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해당 지역어의 언어 재현상을 일반화하고 나아가 한국어의 언어현상을 일반화하는데 공헌할 수 있기 때문이다.²⁾

또 다른 측면은 방언에 대한 공시적 연구와 통시적 연구이다. 언어는 어느 한 시점에서 기능하는 체계로서 인식되거나(공시태), 그 변화상 내에서 분석 연구될 수 있다(통시태). 통시태는 언어의 연속적인 역사상의 어느 시점에서 다른 한 시점으로의 이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에 속하는 언어사실들을 다룬다. (이정민, 배영남 1987). 그런데 이러한 태도를

1) 여기에서는 '방언'과 '지역어'를 구별한다. 전자는 소위 행정구역상 영동방언, 동남방언 등 대방언권의 언어를 지칭하는 뜻으로 사용하며, 후자는 군 단위에 속하는 소방언권의 언어를 지칭하는 뜻으로 사용한다.

2) 지역어 사이에서도 언어 차이가 드러나고 있음은 이미 지적된 바 있다. 최명옥(1980), 신승원(1982), 이시진(1986) 등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자연스러운 언어 즉 자연발화 속의 언어에 한정한다면 공시적 입장에 서지않을 수 없다. 그러나 공시적으로 설정된 음운체계, 음운교체 등이 통시적 음운체계, 음운변화 등과 전혀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용언어간의 공시적 기저형 설정에 있어서 통시적 정보를 완전히 배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공시적 기저형 설정에서 추상성이 어느 정도 고려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시적으로 형태소 경계에서 실현되고 있는 화음화현상을 다루면서 두 지역어에서 나타나고 있는 음운현상의 기술에 있어서 표면음성형에 가까운 기저형 설정에 따른 음운규칙 기술의 차이를 검토하여 그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니까 본 연구에서 필자는 기저형 설정에 있어서 가능한 한 추상성을 배제하고자 하기 때문에 자연히 기저형 재구조화도 유도하고자 한다.

한편, 두 지역어에 대한 공시적 연구는 동일한 조사항목에 의해서 행하여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방법론에 있어서 동일한 음운현상에 대한 이해는 동일한 척도에 의거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동일한 방법론 및 동일한 자료에 의한 공시적 연구의 집합체만이 언어의 전반적 이해에 가치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1.2. 한 방언권³⁾ 내에 있는 두 지역어 이상에 대한 비교연구는 우선 그 지역어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 다음 이를 드러내주고 있는 방언구획을 설정하고 나아가 그것을 토대로 언어지도 작성에까지 이르는 것이 목표이다.

국어방언 연구사를 통하여 보면, 연구방법과 연구대상 지역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어방언 연구사는 대체로 3기로 나누어지는데, 제1기에 해당하는 1950년대 이전의 연구는 주로 일본학자인 小倉進平(1944)과 河野六郎(1940)에 의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방언조사와 역사언어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그 후 제2기인 1950년대 중기 이

3) 여기에서의 한 방언권이란 행정구역상 도 단위를 의미한다.

후에서 1960년대에 이르러 연구방법은 언어체계를 중시하는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면서 그 대상지역은 도 단위로 점점 축소되어 왔다.⁴⁾ 제3기는 1970년 이후부터 1980년 중기라고 하겠는데 이 시기는 주로 생성 음운론적 관점 중에서 추상적 음운이론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는데, 그 대상지역은 대체로 군 단위 지역으로 내려왔다. 공시적으로 군 단위 지역에 대한 음운체계를 설정하고 자음과 모음에 관련된 음운현상을 기술해 왔다.⁵⁾ 최근에 이르러서는 생성음운론적 관점 중에서 구체적 음운이론에 의한 연구가 행하여지고 있다.

이상의 방언연구사에서 보면, 한 방언권 내의 하위지역어까지의 비교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하위지역어에서 구체적 음운이론에 입각한 음운현상의 비교연구는 거의 없다.⁶⁾ 한편 경북지역어에서 천시권(1965)과 이기백(1969)이 단지 몇 개의 음운, 어휘로 경북지역을 비교검토했다.

1.3. 앞에서 지적했듯이, 본고에서 취하고 있는 방법론이 공시적 입장에서 있다면 비교연구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사회언어학적인 측면 중의 하나인 사회계층에 있어서 동일해야 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자료는 전형적인 반촌마을에서 필자가 직접조사한 것이다. 부연하면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조사지점이 선정되어야 한다. 그래서 조사지점으로 선정된 곳은 전형적인 반촌지역으로서 안동군 풍산읍 상·하리동과 월성군 양좌동 마을이며, 조사항목으로는 두 지역어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음운현상을 고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용언어간 약 400항목과 어미 7항목을 선정했다. 또한 자료의 제보자는 (Chambers & Trudgill (1980)의 NORMs에 충실히 따랐다. 다시 말해서 이동성이 없는, 늙은, 농촌의, 남자를 의미한다.

1.4. 조사지점으로 선정된 안동군 풍산읍 상·하리동과 월성군 양좌동

4) 김영송(1963), 현평효(1969) 등

5) 최명옥(1974), 이승재(1977), 이동화(1983), 이시진(1986) 등

6) 이 부문에서의 최근 연구는 소강춘(1989)을 들 수 있다.

마을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전자는 속칭 우렁골이라고도 하며 안동시에서 서쪽으로 40여리 떨어진 평야지역이다. 이 곳에는 470여년 간에 걸쳐서 주로 예안 이씨들이 거주하고 있다. 후자는 경주에서 북쪽으로 50여리 떨어진 곳으로 지정문화재, 혹은 비지정문화재 등이 많아서 정부에서는 1984년 12월에 이 마을 전체를 속칭 민속마을로 지정하여 보존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 마을에는 경주 손씨와 여주 이씨들이 살고 있다.

1.5. 본고를 위하여 자료를 제공해 준 분들은 다음과 같다. 양좌동 마을의 조사는 이동화 선생님, 남영중 선생님과 함께 이루어졌음도 밝힌다.

조사지점	성 명	연령	성별	조사년도	비 고
양좌동	이원철	78	남	86.8.21~11.10	확인조사
양좌동	이석중	62	남	86.8.21~11.10	예비, 본격조사
양좌동	이회동	60	남	86.8.21~11.10	예비, 본격조사
양좌동	손병익	54	남	86.8.21~11.10	예비, 본격조사
상리동	이준로	80	남	90.4.13~4.15	본격, 확인조사
상리동	이용구	74	남	90.4.13~4.15	본격, 확인조사
하리동	이용순	67	남	90.4.13~4.15	본격, 확인조사

2. 기저음운체계

2.1 음소

먼저 두 지역어에서 실현되고 있는 순수자음 중에서 현저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s/와 /s'/음소의 경우이다. 대부분의 동남방언에서 /s/와 /s'/가 변별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안동지역어는 그것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 동남방언에서도 젊은층에서는 /s/와 /s'/의 변별적 기능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두 지역어에서 자음들이 변별적 기능을 나타내는 최소 대립쌍을 용언과 체언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l) ⁷⁾ p : p ^h : p'	pul(火) : p ^h ul(草) : p'ul(角)
t : t ^h : t'	tal(月) : t ^h al(假面) : t'al(女息)
c : c ^h : c'	ca- (宿) : c ^h a- (滿) : c'a- (鹽辛)
k : k ^h : k'	ki- (匍匐) : k ^h i- (點燈) : k'i- (插) (안동어)
	ki- (匍匐) : k'i (插)
	k'ᄃ- (消火) : k ^h ᄃ- (成長) (월성어)
s : s'	sal(肉) : s'al(米) (안동어)
	sal(肉) : sal(米) (월성어)
m	mal(馬)
n	nal(日)
ŋ	jɔŋ(龍)
l	k'ul(蜜)

자음 중에서 /ŋ/은 형태론적으로 볼 때 어두에서는 체언과 용언에서 나타나지 않으며 어말에서는 용언에서 나타나지 않는 제약이 있다. 유음 /l/은 따로 다루어야 하지만 음운 기술의 편의상 자음 부류로 넣는다. [l]과 [r]은 상보적 분포를 보이는데 언중의 화자들은 동일한 음성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기저형 설정에 있어서 둘 중 어느 것을 기저형으로 잡아야 할 것이냐가 문제이다. 필자는 /r/은 모음 사이에서 /l/은 그 외의 환경에서 나타나므로 /l/을 기저형으로 선정한다. 그러나 /r/을 기저형으로 선정한다는 견해를 피력한 학자들도 다수 있다.⁸⁾

다음 단모음에 관하여 살펴보자. 국어의 단모음체계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중부방언의 10모음체계를 들 수 있다. 그런데 대체로 동남방언은 6모음체계 혹은 7모음체계이다. 한편으로 동남방언 중에서 백두현(1985)은 상주 화북지역어는 8모음체계를 지닌다고 밝힌다.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경북방언에서 중화되어 서로 구별되지 않는 /e/와 /ɛ/, /ɨ/와 /ə/가 상주

7) 편의상 안동지역어는 안동어, 월성지역어는 월성어라 지칭한다.

8) 'ㄹ'의 기저형 /r/로 설정한 학자로는 이승재(1980), 최태영(1981) 등을 들 수 있다.

화북지역어에서는 구별되어 나타난다. 그렇다면 동남방언의 하위지역어인 안동지역어는 /E, i, ə, i, u, o, a/의 7모음체계인데 비해서 월성지역어는 /E, i, u, o, a/의 6모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부연하면 안동지역어는 /e/와 /ɛ/가 중화된 상태인 /E/로, 월성지역어는 중화된 음소인 /E/ 그리고 /i/와 /ə/가 중화된 상태인 /ɜ/로 나타낸다. 두 지역어에서 단모음들이 변별적 기능을 나타내는 최소대립쌍은 다음과 같다.

- (2) E : i k'E- (破) : k'i- (插)
 E : i k'E- (破) : k'i- (消)
 o : i k'o- (續) : k'i- (消)
 i : ə tʰi- (機) : tʰəi- (毛)
 u : o k'u- (夢) : k'o- (總)
 a : i ka- (去) : ki- (匍匐)

마지막으로 활음에 관하여 살펴보자. 두 지역어에서 반모음이라고 불리는 /w/와 /j/를 활음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h/를 활음으로 다룰 것이냐 아니면 자음으로 다룰 것이냐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 지역어에서는 /h/를 활음으로 본다. 물론 몇몇 학자들은 변이음 관계, 다른 음소들과의 결합 관계 등을 들어서 /h/를 자음으로 분류하고 있다.⁹⁾ 활음과 관련된 어휘들은 다음과 같다.

- (3) wəŋ(王), joŋ(龍), jak(藥), noh- (放)

2.2 운소

지금까지 동남방언에서 운소를 논의하는데 그 중에서 성조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그 기술방법을 달리해 왔다.¹⁰⁾ 다시 말해서 성조를 기술하는

9) 허웅(1984), 박경래(1984) 등에서 주장하고 있다.

10) 일반적으로 운소란 고저와 장단 즉 성조와 음장을 일컫는다.

방법에 있어서 성조체계로 기술할 것이냐 혹은 액센트체계로 기술할 것이냐이다. 최근에 성조에 관련된 논문 중에서 이동화(1990)는 전자의 방법을 취하면서 성조에 대한 개념부터 좁게 사용하여 주로 고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논의했다. 김주원(1991)은 후자의 방법을 취하고 합리성, 간결성 등을 고려하면서 강세, 고저, 장단까지를 다 포함해서 관심을 가졌다. 한편, 전자는 성조결합 과정을 논의하는데 적절하고 후자는 현지조사 및 기록을 하는데 유용하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두 지역어에서 실현되고 있는 음운현상 중에서 모음과 관련된 활음화에 관하여 다루고자 하기 때문에 음장에까지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후자의 입장에 관심을 기울인다. 그러면 두 지역어에서 음장으로써 변별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들면 다음과 같다.

(4) ma'l(馬) : ma:l(言)

한편, 본고에 사용된 음소와 음성의 자음과 모음은 다음과 같다.

- (5) (ㅁ) : /p/[p, b] (ㅂ) : /p'/[p'] (ㅅ) : /p^h/[p^h]
 (ㄷ) : /t/[t, d] (ㄸ) : /t'/[t'] (ㅆ) : /t^h/[t^h]
 (ㅈ) : /c/[c, j] (ㅊ) : /c'/[c'] (ㅊ) : /c^h/[c^h]
 (ㄱ) : /k/[k, g] (ㅋ) : /k'/[k'] (ㅋ) : /k^h/[k^h]
 (ㅅ) : /s/[s] (ㅆ) : /s'/[s']
 (ㅁ) : /m/[m] (ㄴ) : /n/[n] (ㅇ) : /ŋ/[ŋ]
 (ㄹ) : /l/[r, l] (ㅎ) : /h/[h]

활음 : /j/[j] /w/[w]

(ㅔ와 ㅖ의 중화) : /E/[E] (ㅣ) : /i/[i]

(ㅚ와 ㅜ의 중화) : /ɛ/[ɛ] (월성지역어)

(ㅡ) : /ɨ/[ɨ] (ㅓ) : /ə/[ə] (ㅜ) : /u/[u]

(ㅗ) : /o/[o] (ㅓ) : /a/[a]

3. 활음화

일반적으로 이중모음은 j계와 w계의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이 두 지역어에서도 마찬가지로서 형태소 경계에서 실현되고 있는 j계와 w계 이중모음의 표면상의 음성제약을 비교한다. 그래서 그 비교를 통하여 공시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음운규칙을 중시하면서 되도록이면 구체음운이론의 입장에 서서 고찰하고자 한다. 자연히 기존의 추상음운이론보다 더 많은 기저형이 새로이 등장할 것이다.

3.1. j계 이중모음의 경우

j계 이중모음의 경우, 형태소 경계에서의 활음화는 /i/말모음을 가진 용언어간이 어미 'a/ə'와 결합할 때 일어나는 j-형성을 말한다.¹¹⁾ 여기에 서는 두 지역어에서 실현되고 있는 /i/말모음을 가진 용언어간을 1음절과 2음절 이상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1음절로 된 /i/말모음을 가진 용언어간을 보자.

(1)	안동지역어	월성지역어
ㄱ. i- (戴)	i+ato→jǎdo	i'+ato→jǎ do
i: - (葺)	i: +ato→i: do	i: +ato→i: do
ㄴ. c{i~ə}- (負)	cǎ +ato→cǎdo	cǎ: +ato→cǎdo
c ^h {i~ə}- (打)	c ^h ə: +ato→c ^h ədo	c ^h ǎ: +ato→c ^h ǎdo
ㄷ. ki- (匍匐)	ki+ato→ki: do	ki+ato→ki: do
p ^h i- (開花)	p ^h i+ato→p ^h i': do	p ^h i+ato→p ^h i': do
pi: - (空)	pi: +ato→pi: do	pi+ato→pi: do
k'i- (挿)	k'i+ato→kjǎ do	c' {i~ǎ} +ato→c'ǎ do

11) 제주도 방언에서는 1음절의 경우, 위와같은 환경에서 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정승철: 1988)

pi(空)+ən→piən, ki(匍匐)+ən→kiən

(1. 7)은 어간말모음 /i/에 선행자음이 없는 경우, /i/가 단모음이냐 장모음이냐에 따라 표면음성형이 달리 실현된다. 먼저 /i/가 단모음이면 활음 /j/를 형성하여 표면음성형에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활음 /j/가 형성되고 난 다음 활음 /j/가 탈락하지 않는다. 그것은 두 지역어에서 자음이 선행하지 않는 j계 이중모음은 제 음가가 그대로 실현되기 때문이다. 또한 국어에서 일반적으로 자음이 선행하는 1음절 어간모음이 어미모음 'a/ə'와 결합할 때 (1. 7)은 그러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므로 장모음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i/가 장모음이면 어미모음 'a/ə'가 앞의 /i:/ 모음에 순행동화한 것으로 본다. 만약 이 경우에 활음 형성을 인정한다면 복잡한 양상을 초래하게 된다. 즉 어간모음 /i:/가 어미모음 'a/ə'와 결합하여 [jə] (안동지역어), [jɛ] (월성지역어)를 형성한 뒤 [jə:] 혹은 [jɛ:]에서 모음축약을 일으켜 [e:]를 형성하고 다시 [e:]가 [i:]로 고모음화 현상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설명 방법은 본고의 태도인 공시적 입장에서 본다면 무리한 설명 방법일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두 지역어에서 공시적으로 생산적이지 못한 모음축약을 허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어미모음 'a/ə'가 탈락한 것으로 처리한다면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으나 (1. ㄷ)과 같이 /i/가 단모음임에도 불구하고 어미모음 'a/ə'와 결합하여 표면음성형에 장모음이 실현되는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1. ㄴ)은 원래 어간말모음 /i/에 선행자음이 파찰음인 경우이나 구체음운이론에 입각해서 되도록이면 단일 기저형이 아닌 음운론적으로 조건된 어간의 교체형을 제시하고자 한다는 견지에서 어간말모음을 /ə/ 혹은 / /로 잡는다. 부연하면 어미두모음 'a/ə'와 결합하는 어간말모음의 기저형을 /ci- (負)/, /cɨ (打)/대신에 /cə- (負)/, /cə- (打)/로 각각 설정한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동음삭제 규칙만으로 표면음성형을 도출시킬 수 있다. 그런데 국어의 경우 어간과 어미 중 어간이 기능부담량 (functional load)이 큰 것으로 보아 어미두모음 'a/ə'가 삭제된 것으로 본다. 결국

(1. ㄴ)은 어간말모음이 /i/가 아니라 /ə/혹은 /ɜ/로 보아야 하지만 기술의 편의상 여기에서 취급하였다. 한편 최명옥(1982)은 $táci + a \rightarrow táci^e$ 의 경우로 보아서 활음 형성을 거친 것으로 본다.¹²⁾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구개음운이론의 입장을 견지한다면 표면음성형에서 실현되지 않는 [yə] 혹은 [jɜ]를 설정한다는 것은 곤란한 일이다.

(1. ㄷ)은 어간말모음 /i/ 앞에 파찰음이 아닌 선행자음이 올 때, 먼저 /i/가 단모음인 ki- (圃圃), pʰi- (開花), /i/가 장모음인 pi:- (空) 경우부터 보자. /i/가 단모음이든지 장모음이든지 관계없이 표면음성형이 장모음으로 실현되고 있다. 그러니까 어미두모음 'a/ə'가 탈락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i/가 탈락한 것도 아니다. 결국 어미두모음 'a/ə'가 앞의 /i/혹은 /i:/ 모음에 순행동화한 것으로 처리한다. 만약 활음 형성을 가정한다면 (1. ㄱ)의 /i/가 장모음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연스런 설명 방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k'i- (挿) 경우를 보자. 이 경우는 공식적 입장에서 기저형 설정에 있어서 통시적 변화를 고려한 것으로 형태소 내부에서 적용된 구개음화 규칙의 결과에 의해서 양동지역어에서는 어간모음 /i/앞에 연구개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반면에 안동지역어에서는 어간모음 /i/앞에 연구개음이 경구개음으로 실현되는 연구개음의 구개음화(velar palatalization)를 경험한 음으로 재구조화되어 표면음성형에 나타나고 있다. 양동지역어에 나타나고 있는 표면음성형 [kjédo]는 (1. ㄷ)의 다른 어사들과 동일한 음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모음순행동화를 경험하지 않고 활음을 형성하고 있으면서 그 활음을 그대로 유지한다. 그래서 k'i- (挿)의 어사는 모음순행동화의 예외로 처리하여 minor rule을 설정한다. 거기에 비해서 월성지역어에 나타나고 있는 표면음성형 [c'ɛdo]는 통시적 변화를 거쳐서 어간

12) 두 지역어에서 생산적인 자음을 선행한 1음절 어간모음이 활음을 형성하면서 장모음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활음형성과 동시에 파찰음 뒤에서 조음위치를 같이하는 j가 삭제되기 때문으로 설명한다.

이 재구조화된 것으로 (1. ㄴ)과 같은 것으로 처리한다. 다시 말해서 어간 말모임의 기저형을 /k'i-/에서 통시적 구개음화를 거쳐서 /c'i-/로 된 다음 구개음운이론의 견지에서 /c'ɥ-/로 처리하여 동음삭제규칙이 적용된 것으로 본다.

(2)	안동지역어	월성지역어
ㄱ. ci : -(握)	ci : +ato→ci : do	ci : +ato→ci : do
si : -(籠)	si : +ato→si : do	si : +ato→si : do
k'i : -(通)	k'i : +ato→k'i : do	k'i : +ato→k'i : do
t'i : -(走)	t'i +ato→t'i : do	t'i : +ato→t'i : do
tɕi : -(跳)	tɕi : +ato→tɕi : do	tɕi : +ato→tɕi : do
ㄴ. hi : -(數)	hi : +ato→hi : do	hiali +ato→hiaredo
pi : -(枕)	pi : +ato→pi : do	pi : +ato→pi : do
mi : -(肩負)	mi : +ato→mi : do	mi : +ato→mi : do
ㄷ. pɕi : -(伸)	pɕi : +ato→pɕi : do	pɕi : +ato→pɕi : do
pɕi : -(伸)s'i : +ato→s'i : do		pɕi : +ato→pɕi : do

두 지역어에서 (2)는 어간의 재구조화를 경험한 것이다. 부연하면 (2. ㄱ)은 표면음성제약(Surface Phonetic Constraints)에 의하여 /wi/가 /i : / 혹은 /i/로 재구조화한 것이다. 대체로 두 지역어에서는 이중모음 앞에 자음이 있으면 재음가를 발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근거에서이다.

먼저 (2. ㄱ)의 ci : -(握)와 si : -(籠)는 어간말모임 /i : /에 선행자음이 파찰음이지만 (1. ㄴ)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1. ㄴ)은 구개음운이론에 충실해서 어간말모임의 환경이 (2. ㄱ)의 ci : -(握)와 si : -(籠)와는 다르다. 그래서 선행자음이 파찰음이면서 /wi/에서 /i : /로 재구조화된 어사들인 ci : -(握)와 si : -(籠)는 모음순행동화를 경험한 것으로 처리한다. 다음으로 (2. ㄱ)의 k'i : -(通), t'i : -(走), tɕi : -(跳)는 어간말모임 /i : /와 /i/에 선행자음이 파찰음이 아닌 경우이며 이 경우에는 (1. ㄷ)과 동일한 환경이므로 역시 모음순행동화를 경험한 것으로 본다.

(2. ㄴ)은 /e/에서 형성된 /i:/를 가진 어사들로서 즉 두 지역어에서 어간의 재구조화를 가져온 것들이다. 이러한 어사들도 (1. ㄷ)과 동일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어미두모음 'a/ə'가 어간말모음 /i:/에 순행동화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se-(數)에서 재구조화된 어사는 안동지역어에서는 /hi:-/이지만 월성지역어에서는 /hiali-/이다. 월성지역어에서의 /hiali-/는 2음절 이상의 어간에서 다룰 것이다.

마지막으로 (2. ㄷ)을 /jə-/혹은 /jə-/가 /i-/를 재구조화한 것이다. '(이불)을 퍼다'의 어사인 경우에는 두 지역어에서 공통적으로 /pʰi-/로 되지만 '(기지계)를 켜다'의 어사인 경우에는 안동지역어에서는 /si-/로, 월성지역어인 경우에는 /pʰi-/로 된다. 어쨌든 (2. ㄷ)은 (2. ㄱ, ㄴ)과 마찬가지로 /i-/로 어간의 재구조화를 가져오면서 모음순행동화로 음성표면형을 도출할 수 있다.

결국 (1)과 (2)를 종합해 보면, 형태소 경계에서 1음절로 된 /i/말음을 가진 용언이 어미 'a/ə'와 결합할 때 활음 /j/가 형성되는 경우는 먼저 (1)에서는 어간말모음 /i-/가 단모음이면서 선행자음이 없을 때 그리고 안동지역어에서 k'i-(插)의 어사에 나타난다. 다음으로 어간의 재구조화를 경험하고 생성된 /i:/ 혹은 /i/가 어미두모음 'a/ə'와 결합하는 (2)에서는 활음 /j/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지않고 어미두모음 'a/ə'가 어간말모음 /i:/ 혹은 /i/에 순행동화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두 지역어에서 활음 /j/가 형성되는 경우는 모음순행동화의 예외로 처리하여 minor rule을 설정한다. 왜냐하면 구체음운이론의 입장에서 보면 1음절의 경우 두 지역어에서 활음 /j/ 형성보다는 모음순행동화가 훨씬 생산적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2음절 이상으로 된 용언어간을 보자.

(3)	안동지역어	월성지역어
ㄱ. kjəndi-(忍)	kjəndi+ato→kjəndido	kjəndi+ato→kjəndədo
málli-(仲裁)	málli+ato→mállido	málli+ato→mallEdo
masi-(飲)	mási+ato→másido	masi+ato→máSedo
kitáli-(待)	kitali+ato→kidárido	kitali+ato→kidárEdo

konc ^{hi} - ~ konc ^{hi} -} (改)	koc ^{hi} +ato→kóc ^{hi} ido	konc ^{hi} +ato→konc ^h Edo
íki- (勝)	iki+ato→ígido	iki+ato→ígEdo
t'ali- (煎)	t'ali+ato→t'arido	t'ali+ato→t'arEdo
t'Engki- (引)	t'Engki+ato→t'Enggido	t'Engki+ato→t'EnggEdo
humc ^{hi} - (盜)	humc ^{hi} +ato→humc ^{hi} ido	humc ^{hi} +ato→humc ^h Edo
tali- (熨)	tali+ato→tárido	tali+ato→tárEdo
kili- (晝)	kili+ato→kirido	kili+ato→kirEdo
cEli- (痺)	cEli+ato→cérido	cEli+ato→céreEdo
{c'Eli- ~	c'Eli+ato→c'Érido	c'Elgi+ato→c'ElgEdo

c'Elgi-} (漏小便)

{nEli- ~	nEli+ato→nérido	nǎli+ato→nǎrEdo
nǎli-} (降)		
ㄴ. t'ənci- ~ (投)	t'ənci+ato→t'əncədo	t'ənci+ato→t'əncEdo
{manci- ~	manci+ato→mancədo	manc ^{hi} +ato→manc ^h Edo
manc ^{hi} -} (觸)		

kənci- (救)	kənci+ato→kəncədo	kənci+ato→kəncEdo
cap'aci- (後倒)	cap'aci+ato→cap'acədo	cap'aci+ato→cap'acEdo
ㄷ. moi- (集)	moi+ato→moyədo	moi+ato→moEdo

두 지역어에서 어간말모음 /i/를 지닌 2음절 이상의 용언은 표면음성형에서 상이한 양상을 드러내주고 있다.

먼저 안동지역어를 보면, (3. 7)은 1음절에서와 동일하게 어미두모음 'a/ə'가 어간말모음 /i/에 순행동화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면 (3. 7)의 표면음성형은 장모음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단모음으로 실현되고 있다. 한편으로 어미두모음 'a/ə'가 어간말모음 /i/와 결합할 때 'a/ə'가 삭제되었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3. 7)과 같은 표면음성형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음운론적 강도면에서 볼 때 'a/ə'보다는 /i/가 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설명 방법은 설득력이 없다. 그래서 이 지역어에서는 /i/모음 앞의 선행자음의 종류에 관계없이 발음 형성과 발음 탈락

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처리한다. 부연하면 어간말모음 /i/와 어미두모음 'a/ə'가 결합하여 활음을 형성하고 그 다음 모음축약(jə→E)¹³을 일으키고 다시 고모음화(E→i)를 경험한 것으로 처리한다.

다음으로 월성지역어를 보면, (3.ㄱ)은 단일 기저형이 아닌 음운론적으로 조건된 어간의 교체형을 제시한다고 가정한다면¹⁴ 즉 어미두모음 'a/ə'와 결합하는 어간말모음을 /E/라고 두면 모음순행동화 규칙에 의하여 (3.ㄱ)의 표면음성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규칙을 적용받으면 (3.ㄱ)의 어사들은 제2음절 이상에서 장모음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전부 단모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결국 (3.ㄱ)의 합리적인 설명 방법은 활음 형성, 모음축약의 과정을 경험하는 어사들로 본다.

(3.ㄴ)은 파생어미 ci-를 가지는 2음절 이상 어간의 경우이다. 먼저 안동지역어를 보면, 어간말모음 /i/가 음운론적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어미두모음 'a/ə'와 결합할 때 탈락했다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 (3.ㄴ)이 (3.ㄱ)과 동일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i/ 탈락을 적용받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파생어미 ci-를 가지는 2음절 이상 어간의 경우에 한정해서 minor rule을 설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3.ㄱ), (3.ㄴ)과의 전체적 기술로 보아 자연스러움을 확보하는데 부족하다. 그래서 (3.ㄴ)은 활음 형성, 활음 삭제의 과정을 경험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

다음으로 월성지역어를 보면, (3.ㄴ)이 표면음성형에서 (3.ㄱ)과 동일한 양상을 나타내므로 동일한 음운 과정을 거친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cap'aci- (後倒)의 어사인 경우는 활음 형성, 모음축약의 과정을 경험한 것이 아니고 활음 형성, 활음 삭제의 과정을 경험한 것으로 처리한다. 즉

13) 모음축약에 대한 외적 증거로는 본고에서 안동지역어와 비교대상인 월성지역어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14) 그러한 가정은 (3.ㄱ)이 자음으로 시작되는 어미두모음 즉 -ko, -təla 등과 결합할 때는 어간말모음 /i/를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ㄷ)의 안동지역어와 동일한 표면음성형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 경우에 한해서 월성지역어에서 예외로 취급하고자 한다.

(3.ㄷ)은 어간말모음 /i/ 앞에 선행자음이 없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안동지역어가 활음 형성 과정만 거친 반면에 월성지역어는 (3.ㄱ), (3.ㄴ)과 마찬가지로 활음 형성, 모음축약의 과정을 경험한 것으로 생각한다.

(3)을 종합해 보면, 형태소 경계에서 2음절 이상으로 된 어간말모음 /i/를 가진 용언이 어미두모음 'a/ə'와 결합할 때 두 지역어에서 상이한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즉 안동지역어에서 (3.ㄱ)이 활음 형성, 모음축약, 고모음화의 과정을 경험하고 (3.ㄴ)이 활음 형성, 활음 삭제 과정을 거쳐서 표면음성형을 도출하고 (3.ㄷ)은 활음 형성 과정만 거친다. 거기에 비해서 월성지역어는 (3.ㄱ), (3.ㄴ), (3.ㄷ)이 동일한 음운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즉 활음 형성, 모음축약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생각한다.

3.2. w계 이중모음의 경우

w계 이중모음의 경우, 형태소 경계에서의 활음화는 /o, u/를 지닌 용언어간이 어미두모음 'a/ə'와 결합할 때 일어나는 w-형성을 말한다. 본고에서는 두 지역어에서 나타나고 있는 /o, u/말음을 지닌 용언어간을 1음절과 2음절 이상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1음절로 된 /o, u/말음을 지닌 용언어간을 보자.

(4) 안동지역어	월성지역어
ㄱ. o- (來) o+ato→wado	o+ato→wado
ㄴ. p{o~a}-(視) pa+ato→pa:do	pa+ato→pa:do
ㄷ. s'{o~a}-(射) s'a+ato→s'ado	s'o+ato→s'o:do
k'{o~a}-(燃) k'a+ato→k'a:do	k'o+ato→k'o:do ¹⁵⁾

15) 월성지역어에서 (4.ㄷ)의 어사가 어미 -ko, -təla와 결합할 때는 기저형이 /s'u-/ , /k'u-/로 각각 설정된다.

- ㄷ. $k'\{o\sim u\}$ - (夢) $k'u+ato\rightarrow k'\acute{o}do$ $k'o+ato\rightarrow k'o:do$
 $c^h\{o\sim u\}$ - (舞) $c^ho+ato\rightarrow c^ho:do$ $c^hu+ato\rightarrow c^h\acute{o}do$
 $c\{o\sim u\}$ - (授與) $co+ato\rightarrow co:do$ $co+ato\rightarrow co:do$
 $n\{o\sim u\}$ - (尿) $no+ato\rightarrow no:do$ $no+ato\rightarrow no:do$

(4. ㄱ)은 어간말모음 /o/에 선행자음이 없는 경우, 두 지역어에서 활음 /w/를 형성하여 표면음성형에 나타난다.¹³⁾ 부연하면 활음 /w/가 형성되고 난 후에 활음/w/가 탈락하지 않는데 그것은 활음 /j/와 마찬가지로 두 지역어에서 자음이 선행하지 않는 w계 이중모음은 제 음가가 그대로 실현되기 때문이다. 또한 활음이 형성되면서 장모음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1. ㄱ)에서 언급된 바 있다.

(4. ㄴ)은 어간말모음 /o/에 순음이 선행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기저형 분석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저형의 설정은 분석자의 태도에 따라 추상적일 수도 있고 구체적일 수도 있다. 그런데 본고에서는 구체음운이론의 입장에서 기술하고자 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저형 설정에 있어서 후자의 입장을 취한다. 그래서 (4. ㄴ)은 어미두모음 'a/ə'와 결합하는 어간말모음의 기저형을 /po-/ 대신에 /pa-/로 설정한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모음순행동화 규칙에 의하여 (4. ㄴ)과 같은 표면음성형을 도출할 수 있다. 물론 활음화 과정을 거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즉 어간말모음 /o/가 어미두모음 'a/ə'와 결합할 때 활음을 형성하면서 보상적 장모음을 가지고 그 다음 활음 삭제에 의하여 표면음성형(4. ㄴ)을 도출시킨다. 그러나 후자는 전자보다 규칙적용에 있어서 복잡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전자의 입장을 취한다. 또한 어간말모음 /o/가 어미두모음 'a/ə'앞에서 삭제되었다고 한다면 표면음성형에서 장모음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하기가 곤란하다.

(4. ㄷ)은 두 지역어에서 표면음성형이 상이하게 드러나고 있다. 먼저

13) 1음절에서 자음이 선행하지 않는 어간말모음 /o/는 어미두모음 'a/ə' 앞에서 어간말모음과 同器官의 滑音(homorganic glide)을 수의적으로 삽입시킬 수 있다.

안동지역어에서 (4.ㄷ)의 어사는 (4.ㄴ)의 기저형 설정 방법에 근거하여 어미두모음 'a/ə'와 결합하는 어간말모음의 기저형을 /s'a-/ , /k'a-/로 각각 설정한다. 그래서 (4.ㄷ)의 표면음성형도 모음순행동화 규칙만으로 도출할 수 있다. 다음으로 월성지역어에서 (4.ㄷ)의 어사 역시 (4.ㄴ)의 기저형 설정 방법에 근거하여 어미두모음 'a/ə'와 결합하는 어간말모음의 기저형을 /s'o-/ , /k'o-/로 각각 설정한다. 그렇다면 (4.ㄷ)의 표면음성형 역시 모음순행동화 규칙만으로 도출할 수 있다. 만약 활음화 과정을 거친 것으로 생각한다면 단일 기저형 /s'u-/ , /k'u-/를 각각 설정하고 그 기저형이 어미두모음 'a/ə'와 결합할 때 활음 형성 (wɛ:)하면서 보상적 장모음을 가지고 그 다음 wɛ→o:로 된다는 통시적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 방법은 복잡할 뿐 아니라 공시적 구체음운이론의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 인위적이다.

(4.ㄷ)은 먼저 안동지역어에서 k'u- (夢)와 c'u- (舞)의 어사에만 국한해서 본다면 어간말모음 /u/는 어미두모음 'a/ə'앞에서 탈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cu- (授與), nu- (尿)의 어사는 월성지역어 (4.ㄷ)의 어사와 동일한 환경을 지닌 것으로 생각한다. 즉 음운론적으로 조건된 어간의 교체형을 제시하여 표면음성형 [co:do], [no:do]를 모음순행동화 규칙만으로 처리한다. 다음으로 월성지역어의 어사는 (4.ㄷ)의 월성지역어와 동격으로 다루면 된다.

(4)를 종합해 보면, 형태소 경계에서 1음절로 된 /o,u/말음을 가진 용언이 어미두모음 'a/ə'와 결합할 때 활음 /w/가 형성되는 경우는 어간말모음 /o/가 단모음이면서 선행자음이 없을 때이다. 나머지 어사의 경우는 기저형 분석에 관심을 기울여서 기저형 설정을 본고에서 취하고 있는 입장인 구체음운론에 근거하여 음운론적으로 조건된 어간의 교체형을 제시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모음순행동화 규칙만으로 표면음성형을 도출해 낸다. 결국 두 지역어에서 활음 /w/가 형성되는 경우 모음순행동화의 예외로 처리하여 minor rule을 설정한다. 또, 안동지역어에서 k'u- (夢), c'u- (舞)의 어사에 한정해서도 모음순행동화의 예외로 처리한다.

다음으로 2음절 이상으로 된 용언어간을 보자.

- | | 안동지역어 | 월성지역어 |
|---------------------|--------------------------|----------------------------|
| ㄱ. c'iu- (除) | c'iu + ato → c'íado | c'iu + ato → c'íado |
| pEu- (學) | pEu + ato → pEado | pEu + ato → pEado |
| s'áu- (爭) | s'áu + ato → s'áwado | s'au + ato → s'áwado |
| tiu- (使溫) | tiu + ato → tíado | t'ɜs'uh + ato → t'ɜsá : do |
| miu- (填) | mikuh + ato → mik'á : do | miu + ato → míado |
| ㄴ. pak'u {h~u}- (換) | pak'u + ato → pak'á : do | pak'u : + ato → pak'á : do |
| mac'u {h~u}- (組合) | mac'u + ato → mac'á : do | mac'u : + ato → mac'á : do |
| katu {h~u}- (因) | katu + ato → kadá : do | katu : + ato → kadá : do |
| kətu {h~u}- (收) | kətu : + ato → kədá : do | kətu : + ato → kədá : do |

(5. ㄱ)은 어간말모음 /u/에 선행자음이 없는 경우, 활음 /w/를 형성하여 표면음성형에 나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활음을 형성하고 난 뒤 활음 삭제가 일어나는데 그 이유를 자음과 관련지어서 설명할 수 없다. 즉 어간말음절이 모음으로 시작되므로 두 지역어에서 /w/는 어두 위치에 서만 나타날 수 있고 비어두 위치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본포제약에 의하여 설명된다. 그런데 두 지역어에서 s'au- (爭)의 어사에서만 활음 /w/가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데 후일의 과제로 남긴다. 한편 (5. ㄱ)의 월성지역어에서 tiu- (使溫)의 기저형은 /t'ɜsuh-/이고, 안동지역어에서 miu- (填)의 기저형은 /mik'uh-/이다. 그래서 그들 어사에 해당되는 표면음성형 도출 과정은 (5. ㄴ)과 동일하므로 (5. ㄴ)에서 함께 다루고자 한다.

(5. ㄴ)은 본고에서 견지하고 있는 구체음운이론의 입장에서 음운론적으로 조건된 어간의 교체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부연하면 (5. ㄴ)의 어사가 자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ko, -təla 등)와 결합할 때는 기저형을 /h/를 가진 것으로 잡고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ato, -asə 등)와 결합 할

때는 제2음절에 장음이 있는 것으로 잡는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5.ㄴ) 어사들의 어간말모음 /u/가 장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미두모음 /a/와 결합하여 활음 /w/를 형성하고 난 뒤 활음 삭제를 경험하여 표면음 성형 (5.ㄴ)을 도출하고 있다.

(5)를 종합해 보면, 형태소 경계에서 2음절로 된 /u/말음을 가진 용언이 어미 /a/와 결합할 때 활음 /u/를 형성하고 난 뒤 삭제된다. 단 (5.ㄱ)의 /s'au-/ (爭) 어사 경우에만 활음 /w/가 그대로 남는다. 결국 (5)의 경우에는 활음 /w/의 형성이 두 지역어에서 매우 생산적으로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방언의 비교 연구는 동일한 척도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적인 전제 아래 행하여진 본 연구는 공식적으로 형태소 경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활음 형성 및 탈락 현상을 다룬다. 그러면서 안동군과 월성군에서 실현되는 음운현상의 기술에 동원된 어사의 기저형 설정을 가능한 한 추상성을 배제한 상태에서 하고자 하기 때문에 기저형의 재구조화가 동반된다.

본고에서 논의된 것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두 지역어에서 먼저 순수자음 중에서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s/와 /s'/ 음소이다. 부연하면 월성지역어가 /s/와 /s'/가 변별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에 비해서 안동지역어는 그렇지 않다. 다음으로 단모음 중에서는 /e/와 /ɛ/, /i/와 /a/에 관심을 기울인다. 그 결과 월성지역어는 두 가지 모두 구별되지 않는 것에 비해서 안동지역어는 전자만 구별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월성지역어는 6모음체계를 유지하고 안동지역어는 7모음체계를 유지한다.

(2) 1음절의 경우, 두 지역어에서 활음 /j/가 형성되는 때는 어간말모음 /i/가 단모음이면서 선행자음이 없는 경우이며 또한 안동지역어에서

k'i- (插)의 어사에 나타난다. 그런데 두 지역어에서 활음 /j/가 형성되는 경우를 모음순행동화의 예외로 처리하여 minor rule 을 설정한다. 왜냐하면 구체음운이론의 입장에서 보면 1음절의 경우 활음 /j/형성보다는 모음순행동화가 훨씬 생산적이기 때문이다.

(3) 2음절 이상의 경우, 두 지역어에서 활음 /j/에 관련된 음운 기술은 상이하게 드러나고 있다. 안동지역어는 어사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활음 형성, 모음축약, 고모음화의 과정을 경험한 반면에 월성지역어는 예외없이 활음 형성, 모음축약의 과정만으로 표면음성형이 도출된다.

(4) 1음절의 경우, 두 지역어에서 활음 /w/가 형성되는 경우는 어간말 모음 /o/가 단모음이면서 선행자음이 없을 때이다.

이 때에도 활음 /w/가 형성되는 경우 모음순행동화의 예외로 처리하여 minor rule 을 선정한다. 단 안동지역어에서 k'u- (夢), c'u- (舞)의 어사에 한정해서도 모음순행동화의 예외로 처리한다.

(5) 2음절의 경우, 활음 /w/는 /u/의 발음을 가진 용언이 어미 /a/와 결합할 때 나타나고 그 활음이 삭제되어 표면음성형에 나타난다. 단, /s'au- (爭)의 어사 경우에만 활음 /w/가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데 후일의 과제로 남긴다.

參 考 論 著

金永松(1963) “音韻面” 「慶尚南道誌」(中)

김주원(1991) “성조 기술 방법에 대하여” 영남어문학회 발표요지

박경래(1984) “괴산방언의 음운에 대한 세대별 연구” 「국어연구」57

백두현(1985) “상주 화북지역어의 음운론적 특징” 「소당 천시권박사 회갑 기념 논총」

소강춘(1989) 「방언분화의 음운론적 연구」 한신문화사

신승원(1982) “의성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영남대 석사학위 논문

- 이기백(1969) “경상북도 방언구획” 「동서문화」 (계명대)3
- 이동화(1983) “안동지역어의 음운동화와 삭제” 영남대 석사학위 논문
- _____ (1990) “경북방언 성조의 자립분절음운론적 연구” 영남대 박사학위 논문
- 이승재(1977) “남부방언의 원순모음화와 모음체계” 「관학어문연구」2.
- _____ (1980) “구례지역의 음운체계” 「국어연구」45
- 이시진(1986) “문경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영남대 석사학위 논문
- 이정민, 배영남(1987) 「언어학 사전」박영사
- 정승철(1988) “제주도 방언의 모음체계와 그에 관련된 음운현상” 「국어연구」84
- 천시권(1965) “경북지방의 방언구획” 「어문학」13.
- 최명옥(1974) “경남 삼천포방언의 음운론적 연구” 「국어연구」32
- _____ (1980) 「경북 동해안방언 연구」 민족문화총서4. 영남대출판부
- _____ (1982) 「월성지역어의 음운론」 영남대 출판부
- 허 웅(1984) 「국어음운학」 정음사
- 현평효(1969) “제주도방언의 모음체계” 「국문학보」3 청주대
- 小倉進平(1944) 「朝鮮語 方言の 研究」下 東京
- 河野六郎(1945) 「朝鮮 方言學試致」京城
- Chambers, J. K and P, Trudgill(1980) 「Dialectology」 London : Cambridge Univ. Press
- Chomsky, N. and M. Halle(1968) 「The Sound Pattern of English」 New York : Haper and Row.